

習慣性 流産의 東西醫學的 考察

白承嬉 · 李京變 · 宋炳基*

ABSTRACT

Oriental and Western Consideration of Habitual Abortion

Seung-Hee Baek, O.M.D., Kyung-Sub Lee, O.M.D. and Byung-Kee, Song, O.M.D.
Department of Gyne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In the Oriental Western Consideration of Habitual Abor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1. Habitual abortion means repetition of Tatae(abortion within 3 months), Sosan(abortion after 3 months), and Bansan(abortion after 5 months), as it agrees with Hoaltae, Sutatae and Nuing-Nuta in oriental medical science.
2. Frequency in Occurrence of habitual abortion is about 0.2-0.4% in the whole pregnancy and the Ratio of Risk increases according to frequency and age increase.
3. Generally, the cause of habitual abortion is due to the cause of the mother. Therefore, diagnosis and treatment of before-childbirth are needed, and 'measures taken to prevent abortion' is in use to improve the condition of health of before-childbirth in oriental medical science.

* 慶熙大 大學院 婦人科

※ 본 논문은 1995년 9월 22일 대한한의학회에 제출된 논문임.

4. The 50-60% of early abortion is due to the heterochromosome and the ratio of risk of habitual abortion is highest in heterochromosome.
5. The causes of habitual abortion are summarized as vital energy and blood weakness, impairment of Chong and Ren, affliction by exopathogen, fever caused by blood deficiency, weakness of the spleen and the stomach, excess of seven emotion, excess of a sexual desire and injury of a contusion and also the treatments are summarized as invigorating qi(vital energy) and enriching the blood, reducing fever and enriching the blood, reinforcing the spleen, tonifying the Chong and Ren, the practice of a sceticism, psychological peace in oriental medical science.
6. The approach of modern oriental medical science is based on diagnosis and treatment based on 'over all analysis of symptoms and signs' of traditional oriental medical science, it goes abreast with diagnosis of western medical science, and it can be expected more inclusive effect of treatment because 'Acupuncture for prevent abortion', 'Acupuncture with the needle warmed by burning moxa', and so on being developed except medicinal therapy.

I. 緒 論

習慣性 流産의 定義는 一般의으로 3回以上の 自然流産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경우를 意味 한 다¹⁾²⁾. 이러한 習慣性 流産에 관한 定義와 類似 한 내용을 東醫學의 文獻에서 찾아보면 數墮胎, 滑胎, 屢孕屢墮 등으로 名稱된다³⁾. 이 中 滑胎의 名稱은 <經效產寶> 에서 最初로 言及되며⁴⁾ 時代와 文獻에 따라 그 意味를 달리하는데 習慣性 流産의 意味 以外에 催生法의 意味로도 쓰여졌다⁵⁾⁶⁾⁷⁾.

習慣性 流産은 一般의인 自然流産의 反復的인 發生의 意味를 지니는 것으로서 비록 몇 가지의 好發 因子와 頻發하는 條件의 경우를 좁혀 그 特徵的인 내용을 거론할 수 있으나 그

具體的인 내용이 一般的인 自然流産의 경우와 완전히 區分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내용은 東醫學의 古典에서도 마찬가지로서 滑胎 등의 意味는 一般的인 流産을 意味하는 墮胎, 小産, 半産, 半生, 傷娠, 損娠, 墮妊 등의 내용과 同一하게 다루어지며 다만, 程度의 過甚한 경우로 言及되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習慣性 流産에 관한 考察은 먼저 一般的인 自然流産의 내용을 간단히 검토한 다음, 그것을 土臺로 하여 特徵的인 側面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妥當할 것으로 思料된다.

이에 論者는 위의 接近 方法에 따라서 먼저 西醫學에서 다루어지는 習慣性 流産의 概論을 簡略하게 考察해 보고, 이어서 東醫學의 古典에 드러난 내용의 考察과 最近 中國에서 발표된

臨床資料의 檢討를 通하여 習慣性 流産의 東醫學的 內容과 意味를 살펴봄으로써 習慣性 流産의 定義, 原因, 治法에 관한 東西醫學的 見解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習慣性 流産의 西醫學的 理解

1) 習慣性 流産의 定義

습관성 유산이란, 임신 20주 이전(태아체중 500g 미만)에 연속 3회 또는 그 이상의 반복된 자연임신손실을 말하는 것으로⁸⁾⁹⁾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3회 또는 그 이상의 계속 반복되는 자연유산을 의미한다^{10) 11)12)}

2) 習慣性 流産의 發生頻度

일반적으로 習慣性 流産의 頻度は 全 妊娠의 0.2-0.4%정도이다¹³⁾. Poland 등(1978)은 첫 自然流産 後 連續 自然流産의 위험율은 22%라고 하였으며 落胎兒의 染色體 異常이 있으면 反復 流産의 위험율은 80%이고, 染色體 異常이 없으면 正常妊娠의 確率이 85%라고 報告하였다. Warburton과 Fraser (1964)는 첫 流産 後 反復 自然流産의 위험율은 25%, 2회 流産 後의 위험율은 26%, 3회 連續 自然流産 後의 反復流産의 위험율은 32%라고 報告하였다¹⁴⁾.

3) 習慣性 流産의 病因

습관성유산에 대한 접근에서 중요한 것은 모체의 인자로 인한 유산과 태아 및 그 수태산물(conceptus)로 인한 유산을 구분하는 것이다. 대체로 유산은 모체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 많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후속적인 임신에서 유사한 유산 및 조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¹⁵⁾. 습관성 유산의 원인 중 37%는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¹⁶⁾ 그 원인은 대체적으로 다음의 3가지 범주에 의한다¹⁷⁾.

첫째, 유전인자(genetic factor)의 경우에, 초기유산의 50-60%는 낙태아의 염색체 이상에 의하며 이 중 50-60%는 삼체성(trisomy), 15-25%는 성염색체의 단체성(monosomy), 그리고 20-25%는 다배체(polyploidy)에 의한 경우이다¹⁸⁾. 만일 첫번째에 유전인자의 이상이 있었다면, 두번째는 50%의 유전자 이상을 갖게 된다고 본다. 즉 두번의 유산과 기형의 과거력을 가진 부부에서 27%의 교차배열의 확률이 보고되었다¹⁹⁾.

둘째, 호르몬인자(hormonal etiology)의 경우는 chorionic gonadotropin, placental lactogen, progesterone, estrogens, thyroid hormone 등은 특수한 임신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호르몬 치료를 결정하는 데 큰 임상적인 가치가 없으나 이러한 호르몬들의 수치의 감소는 태아의 태반 조직이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²⁰⁾. 이러한 호르몬 인자의 경우 유산과의 관계는 황체기의 결함(luteal phase defect)과 관련이 있다. 초기임신의 유지는 황체에서 생성하는 황체호르몬에 의존하며 임신 6주 이전 황체의 손실은 임신의 종결을 초래한다²¹⁾²²⁾.

셋째, 해부학적 인자의 경우는 크게 자궁경관

무력증 (incompetent internal os of cervix : IIOC)과 선천성 자궁결함(congenital uterine defect), 그리고 후천성 자궁결함(acquired uterine defect)으로 나뉘어 진다²³⁾²⁴⁾. 자궁경관 무력증은 자궁경관의 선천성 혹은 외상성 결함에 의하여 반복되는 태아의 손실을 말하며 이는 임신 18-32주에 진통이나 출혈이 없이 태어나 태낭(fetal sac)이 탈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선천성 자궁결함은 중격자궁(sepate uterus)을 포함한 모든 자궁기형이 반복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선천성 자궁기형중 반복유산이 가장 빈번이 일어나는 것은 쌍자궁(double uterus)이며 다음으로 중격자궁이다. 후천성 자궁결함중 가장 많은 것은 자궁내 유착증(uterine synechia)으로 원인은 자궁내 소파술을 들 수 있으며 그 밖에 분만이나 유산 후 저난포 호르몬 혈증이 있을 경우에도 자궁내 유착증이 나타난다²⁵⁾. 그 외 감염성인자로는 Herpes, Rubella, 거대세포virus(CMV), Tosoplasmosis, Brucella 등이 있으나 대부분이 반복유산을 유발 시키는지의 여부는 증명되지 않고 있다²⁶⁾. 대사성, 내분비성 요인에는 영양부족, 갑상선 질환, 신장 및 심장질환, 간질환, 혈관질환, 환경노출 등이 있으며 휘발성 증기 또는 마취제에 관한 만성 환경노출은 태아의 기형과 유산을 초래할 수 있다. 면역학적 요인(immunologic factor)의 경우, ABO부적합, 정자항체, 자가 면역 질환 등이 있다²⁷⁾²⁸⁾. 의인성 인자(iatrogenic factor)의 경우, 만성 중독, 항 히스타민제, Cytosan같은 세포 독성제나 세포분열에 작용하는 화학요법제 및 황체용해물질(luteolytic agent)을 투여하였을 경우 습관성 유산을 초래

할 수 있다²⁹⁾. 남성인자(male factor)는 과정액증(hyperspermia, 250 milion/ml 이상)과 희정액증(oligospermia)으로 자연유산을 초래할 수 있다³⁰⁾.

5) 習慣性 流産의 治療³¹⁾

습관성 유산의 치료는 각각의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유전학상의 이상으로 인한 습관성유산의 치료법은 아직 없으며 양친 중 어느 한편의 핵형의 이상이 있거나, 3회 연속 자연유산의 낙태아 핵형 분석상으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산전 진단을 위한 산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황체기결함의 치료는 그 원인에 따라 치료되어야 하며, 특정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황체호르몬요법을 권고하는 것이 좋다.

해부학적 이상인 경우는 자궁경관봉합술(trachelorrhapy), Jones and Jones 수술법, Strassmann 수술법과 Rock and Jones 수술법, 자궁내장치 및 난포호르몬요법이 있다.

2. 習慣性 流産의 東醫學的 理解

1) 一般的인 流産에 대한 概要

(1) 名稱에 대한 考察

流産의 名稱에 대해서 張³²⁾은 半産에 대하여 처음 言及하였고, 寒虛相搏으로 因한 半産漏下를 革이라 名하였다³³⁾. 또 後代의 吳³⁴⁾는 胎의 形象의 有無에 따라 小産과 墮胎의 名稱을 區分 하였으며, 葉³⁵⁾은 三, 五, 七月의 各各 流産이 일어난 個月數에 따라 墮胎, 小産, 半産이라

그 名稱을 區分하였으며, 또한 滑胎에 대해 說明 하였다.

위의 內容들을 包含하여 古典에 나타난 流産과 관련된 意味를 지니는 여러 名稱들을 整理하면 그 最初의 症狀인 ‘妊娠腹痛’에서 始作하여 妊娠期間中 陰道를 通하여 少量의 出血이 間歇적으로 비치며 腰痠腹痛과 小腹脹痛이 있는 것을 ‘胎漏’라고 하였으며 出血과 腰痠腹痛이 甚해지면 ‘胎動不安’이라 하였으며 妊娠 三個月以內에 胎가 아직 그 形象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流産이 이루어지는 것을 ‘墮胎’라 하였으며 妊娠 三個月以後에 胎의 形象이 완전히 이루어진 後에 流産되는 것을 ‘小産’이라 하였으며 妊娠期間中 胎動이 停止하며 腹部가 더 以上 계속 增大하지 않고 妊娠反應이 消失하며 陰道에서 下血과 惡臭가 나는 것을 ‘胎死不下’라 하였으며 墮胎, 或은 小産이 連續해서 三回 以上 發生하는 것을 ‘滑胎’或 “習慣性流産”이라 하였다³⁶⁾³⁷⁾.

(2) 辨證施治

本病의 發生은 古典의 記錄에 依하면 病理的인 條件에 있어 經絡養胎說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것으로 言及되어 있다³⁸⁾³⁹⁾. 巢의 見解에 따르면 胎墮가 頻發하는 것으로 알려진 三月, 五月, 七月의 경우 經絡養胎說上, 各各 手厥陰心包經, 足太陰脾經, 手太陰肺經이 그 養胎를 主管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모두 五臟의 脈에 속하는 것이므로 恒常 陰的인 氣運이 虧損되기가 쉬워 墮胎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⁴⁰⁾. 例를 들어 三月과 五月의 경우 王⁴¹⁾武⁴²⁾는 少陽相火의 氣運이 主管하는 時期이기 때문에 墮胎가

頻發한다고 記述하고 있다. 또한 같은 陽月인 1月の 경우는 足厥陰肝經이 主管하는 것으로 怒氣가 發生한 즉, 墮胎가 쉽게 일어난다고 하였다⁴³⁾. 이러한 發生學的인 聯關說은 多분히 觀念的인 것으로 臨床的인 經驗의 蓄積에 따라 後代 醫家들에 의해 많은 批判을 받기도 하였으나 傳統的으로 本學說은 妊娠中の 養生 및 治病의 原則으로 傳授되어 왔다⁴⁴⁾.

臨床的인 側面에서 볼 때, 本病證의 原因에 대하여 張⁴⁵⁾은 차가운 氣運이 虛한 狀態와 서로 만나면 半産漏下가 일어난다고 하였고 巢⁴⁶⁾는 外部로부터의 驚動倒仆, 從高墮下, 風冷, 溫疫, 傷寒 등을 그 原因으로 보았으며 또, 陳⁴⁷⁾은 血氣虛損과 腰痛을 墮胎의 原因으로 보았다. 한편 李⁴⁸⁾는 氣血의 虛損 外에 勞怒傷情에 의한 內火를 重要한 原因으로 삼아 巢의 見解中 風冷에 依한다는 說을 반박하였고, 朱⁴⁹⁾⁵⁰⁾는 胎墮의 原因을 虛와 熱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脾胃가 虛弱하면 墮胎가 發生한다고 했다. 또한 張⁵¹⁾은 憂恐暴怒, 悲哀太甚을 그 原因이라 하여 心理的인 要因을 重要視하였으며 勞力打撲傷損과 風寒 및 暴熱에 感觸하는 것 역시 그 原因이라 하였다. 齊⁵²⁾는 飲食冷熱動風毒物과 妊娠中の 過度한 性生活로 因한 衝擊, 그리고 熱한 藥物을 過用하여 溫病을 誘發시키는 경우 등을 그 原因으로 追加하였다. 그리고 張⁵³⁾은 氣脈이 虛損해지는 것을 重要한 原因으로 보았으며 虛損을 誘發하는 因子들로서 稟賦虛弱이나 過勞, 憂怒로 인해 精力이 困해지는 것, 色慾의 不節制로 因한 生氣 損傷, 跌撲과 飲食에 의한 損傷 등을 서술하였다. 또한 吳⁵⁴⁾는 具體的으로 衝任脈의 虛損과 暴勞房勞로 因한 肝腎

의 損傷 등을 그 原因으로 보았으며 沈⁵⁵⁾은 그 基本的인 原因을 元氣虛損으로 보고, 대부분의 原因을 虛와 熱로 보았으며 그 外 草毒藥 등으로 胎를 傷한 경우도 言及하였다. 孫⁵⁶⁾은 氣血의 虛損과 腰痛을 重要視하였으며 命門과 衝任脈이 虛損한데 다시 色慾淫火가 動한 즉 墮胎의 原因이 된다고 보았으며 또, 脾胃가 虛損한 경우, 胚胎가 滋養을 받지 못하면 墮胎의 原因이 될 수 있다고 보아 脾胃의 重要性을 言及하였으며 經絡養胎說에서 養胎하는 經에 針灸를 犯하면 墮胎한다고 했다.

이러한 原因을 整理하면 크게 先天的인 不足과 房勞過多에다 或은 命門火衰로 因한 腎氣虛損, 攝生不足과 出血 등으로 因한 氣血虛損, 性怒火動이나 熱病에 衣한 熱傷血海, 外科의인 衝擊이나 手術 등에 依한 損傷 등으로 나뉘어 진다.

2) 滑胎(數墮胎)의 辨證施治

(1) 滑胎(數墮胎)의 原因과 治法.

滑胎의 다른 이름은 數墮胎, 屢孕屢墮이다. 이런 명칭으로부터 우리는 反復되는 流産에 대한 東醫學古典의 理解를 類推해 낼 수 있다. 즉, 풀어서 說明하면 滑胎란 墮胎의 反復의인 發生을 意味하는 것으로 그 臨床的인 意味는 墮胎의 過甚한 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滑胎의 原因에 관한 내용은 一般的인 流産의 原因의 範疇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은 文獻的인 考察을 통해 確認할 수 있다.

滑胎의 原因에 대해 말하기를, 먼저 巢⁵⁷⁾와 陳⁵⁸⁾은 血氣가 虛損한 妊婦가 子宮에 風冷의

侵犯을 받은 즉, 胎兒를 滋養하지 못하는 까닭에 墮胎가 頻發한다고 하였으며, 妊婦가 腰痛을 呼訴하면 墮胎가 일어나기 쉽다고 하였다. 이의 治法으로서 孫⁵⁹⁾은 妊娠 二個月의 滑胎의 경우 膝下一寸部位에 灸를 일곱 壯 한다고 하였으며 또, 一方으로 赤小豆를 末로하여 술에 타서 하루에 二回씩 服用한다고 하였다. 또한 陳⁶⁰⁾은 <經心錄>을 引用하여 氣血이 虛損한 즉, 子宮이 風冷의 侵犯을 받아 墮胎가 頻發하는 데에 紫石英圓, 卷柏圓을 使用한다고 하였다. 齊⁶¹⁾는 좀 더 具體的으로 言及하여, 妊娠 三月에 墮胎가 頻發하는 原因에 관하여 手心主 包絡經이 滋養하므로 攝生을 잘 하지 못하면 그 經脈을 傷하기가 쉬운 즉, 墮胎가 쉽게 일어나며 再次 妊娠이 되어도 다시 三月에 이르러 墮胎가 頻發한다고 말하였으며 前述한 <經心錄>의 내용과 同一한 이유로 그 治方으로는 卷栢丸을 使用하였다. 마찬가지로 薛⁶²⁾은 丹溪의 말을 引用하여 그 原因을 熱과 虛로 要約하여 三月에 墮胎가 頻發하는 까닭을 說明하였다. 즉 墮胎가 母體의 虛損에 內熱이 發生하여 일어나는 즉, 또한 三月이 火의 氣運에 속하므로 그 熱이 더 極甚해져 쉽게 墮胎를 發生케 된다고 說明하였다. 그는 그 治療法으로 原因이 血虛로 因한 경우 먼저 그 中氣를 補하면 血은 스스로 回復된다고 하여 白朮湯에 黃芩末 二錢을 加하여 服用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朱⁶³⁾는 淸熱로 血의 經脈循環을 도와 妄行하지 않는 즉 養胎한다 하여 黃芩을 安胎의 聖藥이라 하고, 養胎는 오로지 脾胃에 있다하여 白朮을 安胎의 君藥이라 하였으며 連續되는 墮胎로 胎元의 損傷이 甚한 者는 四物湯加減을 오래도록

服用하여야 한다 하였고, 血少有熱의 原因으로 平素 자주 半産하는 者에게 養血清熱하는 金匱當歸散을 使用하였다. 또, 三, 五, 七月에 半産이 많은데 以前의 墮胎個月에 반드시 다시 墮胎하므로 半産 後에 養氣血固胎元之藥으로 그 虛損을 補하여야 하며, 半産이 많은 陽月의 半個月 以前에 미리 固胎藥을 服用하여 그 連續墮胎를 防止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萬⁶⁴⁾은 妊産婦의 경우, 오미, 칠정, 일상 생활에서의 섭생이 胎兒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治法의 言及에 있어 藥과 針의 誤用은 오히려 상태를 惡化시킬 수 있음을 경계하였으며 處方으로 安胎飲, 杜仲丸, 胡連丸 등을 言及하였다. 한편 李⁶⁵⁾는 朱⁶⁶⁾의 見解에 따라 墮胎가 잘 發生하는 三, 五, 七個月의 半個月 以前에 미리 清熱安胎藥을 服用하여 半産을 豫防하여야 한다 하였고, 또한 健脾養血을 目的으로 古芩朮湯에 阿膠를 加한 方을 通用方으로 使用하며 安胎飲, 金匱當歸散, 加味養營丸 등을 言及하였고 平素 習慣적으로 墮胎하는 者는 다시 杜仲을 加하여 使用한다 하였다. 孫⁶⁷⁾은 衝任督三脈은 胞門에서 起하는 脈으로 墮胎는 衝任脈의 不足에 반드시 色慾之縱恣淫火가 動한 것이라 하여 胎墮의 原因으로 淫火를 強調하였고, 保胎法으로는 脾胃가 五臟六腑와 衝任脈의 長으로서 胚胎를 滋養하므로 먼저 脾胃를 補하라 하였으며, 脈經의 經絡養胎說을 引用하여 養胎하는 月數의 經絡에 針灸를 施行하면 반드시 墮胎한다 하였다. 王⁶⁸⁾과 武⁶⁹⁾는 朱와 見解를 같이하여 그 一般의 頻發原因을 血虛와 血熱로 보았으며, 巢의 <病源>에서 말한 風冷의 侵犯으로 因한 墮胎를 反駁하고 臨床의 例를 引用하여 性味가

急하여 화를 잘내는 경우 相火가 太甚하여 氣를 生成치 못한 즉, 胎를 和平케 하지 못한 同時에 氣를 耗損하여 精을 損傷 당하므로 墮胎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또, 滑胎가 極甚한 경우는 治法으로 血少의 경우 먼저 中氣를 補하면 저절로 血이 滋養된다 하였고, 治方으로 大補陰湯, 阿膠湯, 杜仲丸, 四製艾附丸, 醋附丸을 提示하였고, 千金方의 灸法을 使用하였다. 한편 許⁷⁰⁾는 丹溪心法을 引用하여 墮胎의 原因을 血氣 虛損으로 보았으며 治方으로는 芎朮補中湯, 芎朮湯과 安胎丸, 五味安胎丸을 쓴다고 하였다. 한편, 張⁷¹⁾은 그 原因의 根本을 氣血의 虧損으로 보았으며 다시 그것을 誘發시키는 細部原因으로 先天的으로 몸이 虛弱한 者, 老衰한 者, 七情이 過多하여 精氣를 損傷한 者, 色慾이 過多하여 그 生氣를 損傷한 者, 跌撲損傷, 食傷으로 氣脈을 損傷한 者 등을 言及하였다. 그리고 그는 保胎를 目的으로 할 경우, 먼저 血虛를 治療하여야 함을 原則으로하여 胎元飲, 芎朮當歸湯, 秦山盤石散, 千金保孕丸 등을 段階적으로 言及하였으며 脾氣가 虛한데는 四聖散, 肝腎이 虛한데는 涼胎飲, 肝脾의 虛로 인한 경우 固胎煎 등을 言及하였다. 또, 立齋와 같이 血熱과 血虛로 因하여 數墮胎가 發生하는데 白朮湯에 黃芩末을 二錢 加하여 썼다. 한편 吳⁷²⁾는 數墮胎를 言及하며 그 原因을 房勞過多, 慾火煎熬로 因해 胎氣가 不安해지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 治方으로는 腹痛은 있으나 出血이 아직 始作되지 않은 경우에는 聖愈湯을, 腹痛에 下血이 비치는 경우는 佛手散 등을 使用하였다. 한편, 康⁷³⁾은 陽月에 頻發하는 墮胎의 경우 芩朮湯으로 清熱하고 氣血의 虛損은 八物湯으로 治療하였

다. 그리고 傳⁷⁴⁾은 墮胎의 原因을 몇 가지로 나누어 各各의 原因에 따라 그 治法을 區分하였는데, 妊娠中 怒氣가 頻發하여 墮胎가 일어나면 먼저 그 肝中의 火를 和平케 하여야 하므로 利氣瀉火湯, 房勞過多로 因하면 固氣填精湯, 閃跌로 因하면 理氣散瘀湯, 大便乾結로 因하면 加味四物湯, 畏寒腹痛으로 因하면 黃耆補氣湯, 大努로 因하면 引氣歸血湯을 使用한다고 하였다. 또, 葉⁷⁵⁾은 妊娠中 脾氣의 運化가 圓滑치 못하여 濕이 發生하면 濕은 熱을 生하고 熱로 因하여 血이 쉽게 動하여 胎가 不安하게 되니 마땅히 淸熱養血의 治法을 使用하여야 하고 四聖散, 養胎飲, 固陰煎 등의 治方을 使用하였다. 또, 習慣性인 경우는 金匱當歸散, 虛弱體質이거나 天行炎熱이나 熱病 後의 胎氣不安에는 芎朮湯을 使用한다고 言及하였고 滑胎의 治方으로 固胎丸과 益母丸을 提示하였다. 한편, 林⁷⁶⁾은 墮胎와 半産의 原因을 衝任脈의 虛損, 攝生不能, 閃動, 熱病溫虐 등으로 言及하고 各各의 경우에 있어 그 治法으로는 初期에 八珍湯에 續斷, 陳皮, 杜仲, 砂仁 등을 첨가하여 使用하며, 氣血이 虛損되어 攝生과 灌溉가 不調한데는 胎元飲의 加減方이나 秦山盤石散을 活用하였으며, 腰痛이 甚한 경우는 千金保孕丸을 活用하였다. 그리고 蕭⁷⁷⁾은 陽月에 墮胎가 頻發하는 原因에 대해 說明하였으며 특히 一月에 發生하는 墮胎의 原因과 機轉에 대해서도 說明하고 子息이 없는 이유 中에 一月墮胎가 半以上이므로 初交 後에는 休息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또한 그는 墮胎의 豫防을 위해 房勞過多와 勞怒, 舉重, 洗浴 등을 조심할 것을 主張하여 음식조절과 생활의 절제를 강조하였다. 그는 그 治方으

로 少陽의 火가 動할 경우 大補陰湯에서 桂枝를 빼고 黃芩과 黃柏을 加하여 蜜丸으로 使用하였으며, 脾胃를 補할 目的으로 白朮로 補脾安胎하며 砂仁과 木香으로 行氣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 陳⁷⁸⁾은 墮胎의 原因이 모두 氣血이 虛損하여 胎元이 不固하기 때문이라고 主張하였으며 妊娠한지 三個月後에 尺脈이 澁하거나 微弱하면 胎가 不固한 것이니 오로지 脈이 洪盛해야 墮胎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治法으로는 墮胎의 經驗이 있는 者는 尊生安胎飲이나 胎元飲을 미리 服用하여야 한다고 하고 三月 以前에는 脾胃를 滋養하고, 四月 以後에는 腰腎을 強壯케 하여야 한다고 하고 補血順氣하고 淸熱로 補佐하는 것이 그 大法이라 하였다. 한편 石⁷⁹⁾은 保胎의 方法이 氣血 以外에 있지 않다고 하여 十中에 二, 三은 氣虛로 因하며, 十中에 六, 七은 血虛로 因하여 脫落한다고 主張하였다. 그는 또한 每 三月에 脫落하는 것은 陰虛火動에 因한 것으로 마치 물기가 마른 물고기와 같아 오래 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며 그 治法은 마땅히 腎陰을 淸補하는 것을 爲主로 하고 兼하여 濃味나 구운 음식과 香燥 등의 損氣시키는 飲食物을 忌하라 하여 古人들이 黃芩과 白朮을 安胎의 聖藥으로 삼았으나 그 性味가 苦燥辛燥한 것이라 다만 脾에 濕熱이 있을 때에만 쓸 수 있을 뿐, 後代인들이 그것을 몰라서 安胎의 聖藥으로 誤認한다고 力說하였다. 한편 陳⁸⁰⁾은 葉天士와 意見을 같이하여 肝中之火를 和平케하는 利氣瀉火湯을 使用한다 하였고, 魏⁸¹⁾는 徐靈胎說을 引用하여 半産의 경우 虛滑한 것이 十中 一, 二이며 內熱로 因한 것이 十中 八, 九라 하였다. 또한 그는 胎

가 오직 血에 依存하여 滋養되므로 血이 不足한 즉 胎가 枯渴되어 墮胎가 일어난다고 說明하였다. 그리고 그 血의 不足은 內熱로 因하는바, 火氣가 熾盛하고 陽이 旺盛하여 陰을 虧損하였을 경우 古人들이 養胎를 위해 전적으로 黃芩을 使用하였으며 血은 반드시 脾胃에서 生成되므로 白朮을 佐로 納穀을 도왔다고 言及하였다. 한편 孫⁸²⁾은 滑胎의 原因을 脾臟과 腎臟의 氣虛로 因한 衝任脈의 不固로 보고 그 治法에 있어 마땅히 健脾補腎으로 益氣固攝하여 腎氣가 健旺한 즉 血海가 充盈하니 胎가 安靜이 된다고 하였다.

3) 滑胎의 現代 東醫學的 理解

滑胎에 대한 現代 東醫學的 理解는 西醫學的인 檢査法의 도움과 現代의인 病理機轉을 參考로 하여 보다 精確하고 精密한 診斷이 可能하게 되었으며 科學的인 實驗과 臨床의 統計的인 結果를 通하여 보다 合理的인 治法과 治方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즉, 그 基本的인 臨床의 治療方法은 傳統의인 治法의 範疇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診斷과 治療, 豫防 등의 概論的인 事項에 있어서는 西醫學的인 理解와 處置方法이 적절히 導入되고 있으며 相互 補完的인 關係를 維持함으로써 治療의 效果를 向上시키고 있다.

(1) 原因에 대한 理解

특히, 習慣性 流産의 原因에 대한 接近은 一次的으로 西醫學的인 檢査를 通한 病理機轉의 규명이 先行하며 그러한 규명된 原因에 대해서는 相互 補完的인 豫防과 治療法이 이루어지고

있다. 宋⁸³⁾은 이러한 側面에서 習慣性 流産의 原因으로 病的卵, 子宮의 畸形, 發育不全, 頸管擴大症, 頸管破裂, 腎炎, 梅毒, 低甲狀腺機能體質, 黃體·卵胞호르몬 異常 등으로 言及하였으며, 國⁸⁴⁾은 精神因子, 胚胎發育異常, 胎盤異常, 內分泌功能失調, 血型不合(Rh인자, ABO형), 母體 生殖器의 疾患 및 感冒, 急性 傳染病 등을 言及하였다. 한편, 屠 등⁸⁵⁾은 全身檢査, 夫婦 血型檢査, 精液檢査, 基礎體溫檢査, 基礎代謝 性激素測定, 陰道의 細胞學的 檢査, 卵巢功能의 이해, 婦人科檢査 등을 施行할 것과 注意할 점으로 子宮畸形의 有無, 肌瘤, 發育不良, 子宮機能不全 등을 言及하였다.

(2) 辨證施治

한편 習慣性 流産에 대한 現代 東醫學的인 辨證은 傳統의인 辨證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文獻에 따라 그 分類의 方法이 약간씩의 差異는 있으나 크게는 氣血虛損, 衝任虛損, 命門火衰, 血虛內熱, 性躁火動, 跌撲挫閃으로 나뉘며⁸⁶⁾ 臨床的인 側面에서 볼 때, 특히 腎氣虛弱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⁸⁷⁾⁸⁸⁾. 이러한 分類는 傳統의인 文獻에 나타난 各 醫家들의 滑胎에 관한 辨證을 總括하여 整理한 것이라 볼 수 있다.

各各의 辨證에 따른 治療와 治方은 傳統의인 治方과 새로운 臨床結果로 얻어진 治方들이 함께 쓰이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安胎를 通해 流産을 防止하기 위한 目的으로 運用되어지는 것들이다. 이들 治方 中에 現代에 一般的으로 多用되어 臨床的인 治驗의 結果로 발표된 治方들은 加味阿膠鷄子湯⁸⁹⁾, 所以載丸⁹⁰⁾, 二天固胎煎

⁹¹⁾, 自擬保胎湯⁹²⁾, 安奠二天湯加味⁹³⁾, 附子湯⁹⁴⁾, 自擬固腎安胎飲⁹⁵⁾, 自擬安胎飲⁹⁶⁾, 保胎飲⁹⁷⁾, 黃耆壽胎湯⁹⁸⁾ 등이 있다.

한편 臨床적으로 發表된 內容中 針을 利用한 保胎法과 溫鍼療法 등이 있으며 이 中 溫鍼療法⁹⁹⁾의 경우 百會, 外關, 關元, 足三里, 三陰交, 公孫 등이 選用되었으며, 保胎法¹⁰⁰⁾의 경우는 中極, 歸來, 漏谷, 足三里 등이 利用되었다. 特히 針을 利用한 保胎法의 경우는 一般적으로 妊娠中에는 刺針을 禁하는 臨床的인 規則에 反하는 것이나 이미 流産, 早産 등의 徵候가 發生한 應急의 경우에 있어서는 針을 利用한 保胎의 方法이 그 效果가 迅速하며 安全하고 副作用이 없는 것으로 臨床的인 結果가 발표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 合谷과 같이 그 穴性이 강한 穴位의 경우에는 精確한 刺戟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中焦에 壓迫感을 造成하여 胎位를 아래로 移動시켜 胎動不安, 流産 등을 誘發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刺戟이 適切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一種의 良性 刺戟으로 作用하여 胎位를 위로 移動시키므로 충분히 安胎의 效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¹⁾. 그러므로 이러한 針을 利用한 安胎法은 보다 安全하며, 보다 確實한 效果의 價値를 가지기 위하여 向後 臨床的인 側面에서 充分히 研究할 價値가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3) 其他 安胎法의 理解

위에서 言及한 東醫學의 綜合的인 治法, 治方들이 目標로하는 것은 安胎를 통한 保胎로서 流産을 防止하는 것이다¹⁰²⁾¹⁰³⁾. 그러므로 習慣性 流産을 防止하기 위한 安胎의 方法으로 臨床的

으로 有效한 여러가지 檢査와 調節, 그리고 注意 등이 言及되고 있다. 그러한 安胎法들은 크게 妊娠前의 母體를 滋養하는 方法과 習慣性 流産의 原因을 규명하는 것, 男性쪽의 素因을 규명하는 것, 妊娠後에 母體 및 胎兒의 健康을 維持하는 것, 妊娠中 禁忌法, 流産이 일어난 月數를 넘기는 法¹⁵⁴⁾, 流産이 頻發하는 月의 養胎法(逐月養胎法)¹⁰⁵⁾ 등을 包含한다.

이 中 妊娠前의 母體를 滋養하는 것에 대하여 嚴 등¹⁰⁶⁾은 '治未病'의 理論에서 착안하여 妊娠하기 前에 衝任을 調養함으로써 좋은 治療의 效果를 얻었다고 報告하고 있다. 한편, 男性쪽의 原因에 대한 규명은 精液의 檢査를 통해 原因을 찾아내는 것을 意味하며 東醫學上으로는 選良種¹⁰⁷⁾에 屬하는 것이다. 한편 妊娠中의 禁忌 등은 과격한 性生活, 情緒的인 不安, 過食, 甚한 運動 등을 意味한다. 그 外 習慣性 流産의 治療方法으로 臨床적으로 報告된 例를 들면, 朱는 東醫學의 藥物治療와 西醫學의 藥物療法에 並行하는 것으로 좋은 結果를 거두었다고 하였다¹⁰⁸⁾. 또한 趙 등¹⁰⁹⁾¹¹⁰⁾은 西醫學에서의 ABO혈액형의 부적합에 의한 溶血性의 習慣性 流産에서 東醫學의 辨證에 依한 藥物治療와 并治하여 良好한 效果를 거두었다고 報告하였다.

III. 總 括

1. 西醫學의 考察

西醫學에 있어 習慣性 流産의 定義는 20週

以前(胎兒體重 500g 미만)에 連續 3 회 또는 그 以上の 反復된 自然妊娠損失이 發生하는 것을 意味한다¹¹¹⁾¹¹²⁾. 習慣性 流産의 頻度는 全體 妊娠의 0.2- 0.4% 정도이며¹¹²⁾ 流産의 頻도가 增加할수록 年齡이 높을수록 增加한다¹¹³⁾. 한편 習慣性 流産을 誘發시키는 原因은 大體的으로 母體의 因子와 胎兒 및 그 受胎産物의 因子로 大分할 수 있으나 前者의 경우가 後者에 비해 그 頻도가 높은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¹¹⁴⁾. 또한 그 原因은 遺傳學的, 호르몬성, 해부학적 異常의 경우로 크게 나뉘어지며 이 中 遺傳因子의 異常에 依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⁵⁾.

2. 東醫學의 考察

1) 傳統的인 側面

東醫學의 古典的인 側面에서 볼 때, 習慣性 流産은 滑胎, 數墮胎, 屢孕屢墮 등의 概念과 一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은 自然流産을 意味하는 墮胎, 小産, 半産 등이 連續的으로 發生하는 것을 意味한다¹¹⁶⁾¹¹⁷⁾. 古典의 內容上 滑胎 등은 陰臟의 主管으로 그 滋養이 이루어지는 陽月에 頻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연히 그 個月 數에 養胎의 重要性이 強調되고 있다¹¹⁸⁾. 이러한 流産과 臟器의 發生學的인 聯關說은 大分히 觀念的인 것으로 臨床的인 經驗의 蓄積에 따라 後代 醫家들에 依해 많은 批判을 받기도 하였으나 傳統的으로 東醫學에 있어 妊娠中의 養生 및 治法의 原則으로 傳受되어 왔다¹¹⁹⁾.

이러한 滑胎의 原因은 各 醫家와 時代別로

多様하며 그 重要性도 變遷을 겪지만 古典에 言及된 그 原因들을 크게 大分하면 氣血虛損, 衝任虛損, 外感風冷, 血少有熱, 脾胃損傷, 七情過多, 色慾過度, 跌撲損傷 등으로 나뉘어진다. 먼저 氣血虛損의 경우 그 治療는 卷柏圓¹²⁰⁾, 芎歸補中湯¹²¹⁾, 芍藥芎歸湯과 泰山磐石散과 千金補孕丸¹²²⁾, 八珍湯에 續斷, 陳皮, 杜仲, 砂仁 등¹²³⁾을 使用하였다. 外感風冷의 경우는 膝下一寸部位에 灸를 일곱 壯 하는 것과 赤小豆末을 술에 타서 服用하는 法¹²⁴⁾과, 紫石英圓, 卷柏圓 등¹²⁵⁾의 處方을 使用하는 것 등이 있다. 血少有熱의 경우는 白朮湯에 黃芩末을 二錢 服用하거나¹²⁶⁾, 金匱當歸散¹²⁷⁾으로 清熱養血하는 것, 少陽火가 動할 경우 大補陰湯에 黃芩, 黃柏을 加한 것¹²⁸⁾, 古芩朮湯에 阿膠, 杜仲을 加한 處方¹²⁹⁾, 芎朮湯¹³⁰⁾, 安胎飲, 五味安胎飲 등¹³¹⁾이 있다. 脾胃損傷인 경우는 八珍湯에 人蔘, 黃芪, 半夏, 乳香, 沒藥을 加하거나 八珍湯에 五味子を 加하며 또는 十全大補湯을 사용한다 하였고¹³²⁾, 安胎飲과 杜仲丸 및 胡連丸¹³³⁾을 사용하며 健脾燥濕의 目的으로 安胎飲, 金匱當歸散, 加味養榮湯, 鯉魚와 粳米를 함께 鹽醬에 醃여 먹는 方法 등¹³⁴⁾이 있다. 七情過多의 경우 治方은 利氣洩火湯, 引氣歸血湯 등이 使用되었다¹³⁵⁾¹³⁶⁾. 色慾過多의 경우 治方으로는 固氣眞精湯¹³⁷⁾, 利氣瀉火湯¹³⁸⁾¹³⁹⁾ 등이 사용되었다. 跌撲損傷의 경우 治方에는 理氣散瘀湯 등¹⁴⁰⁾이 使用되었다. 衝任虛損의 경우 그 治法은 大分히 健脾補腎으로 益氣固攝하여야 한다¹⁴¹⁾.

2) 現代의인 側面

現代 東醫學의 臨床에 따르면, 그 原因에 대

한 接近은 現代 西醫學의 檢査法을 충분히 活用하고 있으며 그러한 情報에 따라 傳統的인 處置方法을 各各의 경우에 맞게 적절히 活用하고 있다.

그 原因의 경우에는 이미 앞서 言及한 西醫學的인 見解가 客觀的인 檢査를 통해 包括的으로 認定되고 있으며, 그 原因에 따른 各各의 辨證施治는 앞서 言及한 傳統的인 東醫學의 分類와 機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形편이다.

傳統的인 辨證施治에 따른 治法에는 藥物療法과 針灸療法이 있으며 먼저 藥物療法은 古典에 記錄된 傳統的인 治方과 함께 現代의 臨床的인 結果를 통해 다듬어진 새로운 處方들이 利用되고 있다. 새로운 處方으로는 加味阿膠鷄子湯¹⁴²⁾, 所以載丸¹⁴³⁾, 二天固胎煎¹⁴⁴⁾, 自擬保胎湯¹⁴⁵⁾, 安奠二天湯加味¹⁴⁶⁾, 附子湯¹⁴⁷⁾, 自擬固腎安胎飲¹⁴⁸⁾, 自擬安胎飲¹⁴⁹⁾, 黃芪壽胎湯¹⁵⁰⁾ 등이 있다. 한편 針灸療法은 溫鍼療法과 急性的인 胎動不安의 경우에 利用하는 保胎針法이 있는데 이것들은 보다 安全한 施術과 確實한 效果를 가지기 위하여 向後 臨床的인 側面에서 充分히 研究할 價値가 있다¹⁵¹⁾¹⁵²⁾. 이러한 習慣性 流産의 豫防을 위한 現代 東醫學의 治法은 主로 妊娠 前의 産母의 營養狀態를 도우며 妊娠中의 胎兒의 적절한 滋養狀態를 維持하기 위한 것으로 要約할 수 있다.

한편 現代 東醫學의 內容에 있어 特徵的인 것으로는 西醫學과의 綜合을 들 수 있는데 이런 例로 報告된 것으로서는 西醫學과 東醫學의 藥物治療를 並行하는 것과 ABO血液型 不適合에 依한 溶血性的 習慣性 流産의 并治 등을 들 수가 있다¹⁵³⁾¹⁵⁴⁾.

IV. 結 論

이상 習慣性 流産에 대한 東西醫學의 考察을 通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習慣性 流産의 定義는 西醫學에서는 3回 以上の 自然임신손실로 규정하고 있으며 東醫學에서는 滑胎, 數墮胎, 屢孕屢墮와 一致하는 것으로 墮胎, 小産, 半産의 反復發生을 意味한다.
2. 習慣性 流産의 原因은 대개의 경우 母體의 原因에 依한 경우가 많으며 危險率은 回數의 增加와 産母 年齡의 增加에 따라 增加하므로 産前診斷 및 治療가 요구되고, 東醫學에서는 妊娠前 段階의 母體의 健康狀態를 好轉시키는 安胎法이 主로 利用되고 있다.
3. 西醫學에서는 初期流産의 50-60%가 染色體 異常에 依하며 染色體 異常인 경우 反復流産의 危險率(80%)이 가장 높고, 東醫學에서는 妊婦의 腎氣虛弱이 가장 큰 原因이다.
4. 習慣性 流産의 治療는 西醫學에서는 호르몬 요법 및 해부학적 이상시의 手術요법이 시행되며 東醫學에서는 安胎于先의 辨證施治를 爲主로 한 藥物治療, 鍼灸治療가 並行되고 養生, 攝生 및 心理的 安靜 등으로 要約할 수 있다.
5. 習慣性 流産의 現代 東醫學의 接近은 西醫學의 診斷法을 並行하여 傳統的인 東醫學의

辨證施治를 基本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藥物治療 以外에 保胎鍼, 濫鍼 등이 開發되고 있어 보다 包括的인 治療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고 思料된다.

參 考 文 獻

1. 康命吉 : 濟衆新編, 서울, 杏林書院, 1982.
2.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 부인과학, 서울, 도서출판 칼빈서적, 1991.
3.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 산과학, 서울, 도서출판 칼빈서적, 1991.
4. 宋炳基 : 漢方婦人科, 서울, 杏林出版社, 1992.
5. 醫學教育研修院 ; 家庭醫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1.
6. 李鍾華, 朴炳烈 : 標準漢方婦人科, 서울, 醫藥社, 1979.
7. 許 浚 :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0.
8. 송찬호 : 습관성유산 및 조산, Family Physician 6(6), 1985.
9. 高金亮 主編 : 中醫學問答提庫,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8.
10. 國 轅 : 實用中西醫結合婦產科證治, 1984.
11. 羅元愷 主編 : 中醫婦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12. 戴新民 輯 : 中醫婦產科學, 臺北, 啓業書局有限公司, 1984.
13. 屠振華, 李金邦 主編 : 臨床實習醫師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14. 劉云鵬 : 婦科治驗, 湖北,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15. 萬 全 : 萬氏婦人科, 湖北, 湖北人民出版社, 1983.
16. 武之望 : 濟陰綱目, 서울, 大星出版社, 1972.
17. 福州市人民醫院整理 : 孫浩銘婦科臨床經驗, 福建, 福建人民出版社, 1978.
18. 傅青主 : 傅青主男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1989.
19. 上海何時希 : 妊娠識要, 上海, 學林出版社, 1985.
20. 徐靈胎 :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五洲出版社, 1981.
21. 石壽棠 撰 : 醫原, 江蘇,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22. 薛立齋 : 校註婦人良方, 臺北, 旋風出版社, 1978.
23. 葉天士 : 葉天士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1989.
24. 葉天士 : 葉天士女科診治秘方, 臺北, 大方出版社, 1982.
25. 蕭 損 : 女科經論, 江蘇,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6.
26. 巢元方 : 巢氏諸病源候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2.
27. 孫久齡 : 婦科證治, 河北, 河北人民出版社, 1983.
28. 孫思邈 : 備急千金要方卷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29. 楊思樹 : 中醫臨床大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30. 楊醫普 主編 : 中醫學問答,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31. 嚴用和 : 重訂濟生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32. 吳謙：醫宗金鑑，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
33. 王肯堂：六科證治準繩(女科)，서울，大星文化社，1992.
34. 王祚久，王啓明：中醫婦科臨床精華，四川，四川科學技術出版社，1989.
35. 王化貞：產鑑注釋，河南，河南科學技術出版社，1982.
36. 魏之琇：續名醫類案，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
37. 李東垣：東垣十種醫書 格致餘論，臺北，五洲出版社，1984.
38. 李文主編：婦產科護理，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5.
39. 李梴：編註醫學入門，서울，南山堂，1985.
40. 林佩琴：類證治裁，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8.
41. 張景岳：景岳全書 婦人規，廣東，廣東科學技術出版社，1984.
42. 張從正撰：儒門事親，河南，河南科學技術出版社，1984.
43. 張仲景：仲景全書 金匱要略，臺北，集文書局，1983.
44. 浙江中醫學院：中醫婦科手冊，浙江，浙江科學技術出版社，1985.
45. 齊仲甫：女科百問，北京，北京市新華書店出版，1986.
46. 朱丹溪：丹溪心法 卷二十一，臺北，五洲出版社，1984.
47. 朱丹溪：脈因證治，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6.
48. 朱櫛等編：普濟方，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
49. 陳佳圓：婦科秘書八種，北京，中醫古籍出版社，1988.
50. 陳兆桓輯(朱鶴臯著)：朱氏女科，臺北，文光圖書有限公司，1980.
51. 陳士鐸：辨證錄，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9.
52. 陳少春，呂直整理：何子淮女科經驗集，浙江，浙江科學技術出版社，1984.
53. 陳自明：婦人大全良方，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5.
54. 金石聲：所以載丸治療習慣性流產，四川中醫，(7)，1990.
55. 金真：二天固胎煎治療滑胎35例臨床觀察，浙江中醫學院學報，16(5)，1992.
56. 姚群元：自擬固腎安胎飲治療習慣性流產40例，湖北中醫雜誌，(5)，1992.
57. 劉茂林：保胎飲治療滑胎148例，陝西中醫，12(5)，1991.
58. 劉玉海，唐元祥：附子湯加減治療先兆和習慣性流產53例臨床觀察，四川中醫，(12)，1993.
59. 文良中：針刺可以保胎，浙江中醫雜誌，24(12)，1989.
60. 葉寶貴，陳偉民：自擬保胎湯治療先兆流產60例，浙江中醫雜誌，(2)，1986.
61. 孫延昭：溫陽祛寒溫經除濕法治愈滑胎22例，新中醫，(12)，1989.
62. 嚴可斌，王梅花：“滑胎”治未病法，上海中醫藥雜誌，(7)，1994.
63. 王心好：加味阿膠鷄子湯治療滑胎46例，實用中醫結合雜誌，7(2)，1994.
64. 汪一平：黃芪壽胎丸治療習慣性流產30例，

- 湖北中醫雜誌, (5), 1992.
65. 于榮 : 溫鍼治療習慣性流產41例, 陝西中醫, 14(6), 1993.
 66. 張寬智 : 安奠二天湯加味治療習慣性流產三十七例, 浙江中醫雜誌, (2), 1986.
 67. 趙光燕 : 趙松泉治療“AB. O”溶血性滑胎的經驗, 北京中醫雜誌, (1), 1994.
 68. 趙榮暉 : 保胎法近況, 浙江中醫雜誌, (8), 1987.
 69. 周長法 : 自擬安胎飲治療胎漏胎動不安滑胎93例, 湖北中醫雜誌, (2), 1991.
 70. 韓金蘭, 嚴敬明 : ABO血型不合引起早期流產的中藥治療, 中國中西醫結合雜誌, 13(1), 1993.
 71. Ifly Lesilie, Kaminetzky Harold A. : Principles and practice of obstetrics & perinatology, United States, John Wiley & Sons, 1981,
 72. Jack A. Pritchard, Paul C. MacDonald, Norman F. Gant : Williams Obstetrics (24-Abortion), United Stated of America, Appleton-Century-Crofts A Publishing Division of Prentice-Hall, 1985,
 73. Jack A. Pritchard, Paul C. MacDonald, Norman F. Gant : Williams Obstetrics (Habitual Spontaneous Abortion), United Stated of America, ppleton-Century-Crofts A Publishing Division of Prentice-Hall, 1980,
 - 1) 大韓產婦人科學會 : 부인과학, 서울, 칼빈서적, 1991, p.437.
 - 2) 醫學教育研修院 : 家庭醫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p.467.
 - 3) 羅元愷 : 中醫婦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206
 - 4) 高金亮: 中醫學問答提庫 婦科分冊, 山西, 中醫古籍出版社, 1988, p.63.
 - 5) 張介賓 : 婦人規, 廣東, 廣東科學技術出版社, 1984, pp.201-204.
 - 6) 陳自明 : 婦人大全良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p.444-445
 - 7) 嚴用和 : 重訂嚴氏濟生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152
 - 8) 대한산부인과학회 : 부인과학, 前揭書, p.437.
 - 9) 송찬호 : 습관성유산 및 조산, Family Physician 6(6) ; 889, 1985.
 - 10) 대한산부인과학회 : 산과학, 前揭書, p.400.
 - 11) Pritchard, J. A. , MacDonald, P. C. : Williams Obstetrics(16th Edition), united state, Appleton-Century-Crofts A Publishing Division of Prentice-Hall, 1980, p.597.
 - 12) Pritchard J. A. , MacDonald P. C., Gan N. F. : William Obstetrics , 前揭書, p.474.
 - 13) 송찬호 : 습관성 유산 및 조산, 前揭書 ; 889.
 - 14) Ifly. L. ,Kaminetzky H. A. : Principles and practice of obstetrics & perinatology, United States, John Wiley & Sons, 1981, p.565.
 - 15) Pritchard, J. A., MacDonald, P. C. : Williams Obstetrics, 前揭書, p.597.
 - 16) 송찬호 : 습관성 유산 및 조산, 前揭書 ; 889.

- 17) 대한산부인과학회 : 부인과학, 前掲書, p.438.
- 18) 대한산부인과학회 : 부인과학, 前掲書, p.438.
- 19) 송찬호 : 습관성 유산 및 조산, 前掲書 ; 889.
- 20) Pritchard, J. A., MacDonald, P. C. : Williams Obstetrics, 前掲書, p.597-598.
- 21) 대한산부인과학회 : 부인과학, 前掲書, p.438.
- 22) 송찬호 : 습관성 유산 및 조산, 前掲書 ; 890.
- 23) 대한산부인과학회 : 부인과학, 前掲書, p. 438-439.
- 24) 송찬호 : 습관성 유산 및 조산, 前掲書, p. 890.
- 25) 대한산부인과학회 : 부인과학, 前掲書, p.438-440.
- 26) Ifly. L. Kaminetzky H. A. : Principles and practice of obstetrics , 前掲書, p.569.
- 27) 송찬호 : 습관성 유산 및 조산, 前掲書 ; 890.
- 28) Ifly. L., Kaminetzky H.A. : Principles and practice of obstetrics, 前掲書, p.568-569.
- 29)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인과학, 前掲書, p.440.
- 30) 송찬호 : 습관성 유산 및 조산, 前掲書 ; 890.
- 31) 대한산부인과학회 : 부인과학, 前掲書, pp. 438-440.
- 32) 張仲景 : 仲景全書 金匱要略方論, 臺北, 集文書局, 1983, p.412, p.420.
“婦人有…有半產後因續下血…寒虛相搏 此名曰革”
- 33) 王肯堂 : 六科准繩(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74.
- 34) 吳謙 : 醫宗金鑒,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59.
“五月成形名小產, 未成形象墮胎言”
- 35) 葉天士 : 葉天士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 253-254.
“妊娠有三四月而墮者…有屢孕屢墮者…名曰滑胎”
- 36) 孫久齡 : 婦科證治, 河北, 河北人民出版社 1983, p. 106.
- 37) 高金亮 主編 : 中醫學問答提庫 婦科分冊, 前掲書, p. 63.
- 38) 宋炳基 : 漢方婦人科學, 서울, 杏林出版, 1990, p. 57.
“胎兒는 母體內에서 經絡을 通하여 發育하는데, <巢氏病源論>에 依하면…”
- 39) 王肯堂 : 六科准繩(女科), 前掲書, p. 303.
<逐月養胎法>“北齊名醫徐之才云妊娠一月名始胚…妊娠一月足厥陰脈養…”
- 40) 蕭損 : 女科經論, 江蘇,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6, p. 148.
- 41) 王肯堂 : 六科證治準繩(女科), 前掲書, pp. 372-373.
- 42) 武之望 : 濟陰綱目, 서울, 大城出版社, 1972, pp. 335-337.
“丹溪云…蓋孕至三月正屬相火 所以易墮”
- 43) 蕭損 : 女科經論, 前掲書, p. 148..
- 44) 宋炳基: 漢方婦人科學, 前掲書, pp. 57-58.
- 45) 張仲景 : 仲景全書 金匱要略, 前掲書, p. 420.
- 46) 巢元方 : 諸病源候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302.
“行動倒仆 或從高墮下傷損胞絡致血下動胎…
” “因驚動倒仆或染瘟疫傷 寒邪毒入於…”

- 47) 陳自明：婦人大全良方,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5, p.376.
- 48) 李東垣：東垣十種醫書 格治餘論,臺北,五洲出版社,1984, p.492.
- 49) 朱丹溪：脈因證治,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6, p. 145.
- 50) 朱丹溪：丹溪心法附餘 卷二十一,臺北,五洲出版社,1984, pp. 1-2.
- 51) 張從正：儒門事親 校注,河南,河南科學技術出版社,1984, p. 282.
- 52) 齊仲甫：女科百問,北京,北京市中國書店出版,1986, pp. 62-63.
- 53) 張介賓：景岳全書 婦人規,前揭書, pp. 185-186.
- 54) 吳謙：醫宗金鑑,前揭書, p. 59.
- 55) 沈金鰲：婦科玉尺,서울,翰成社,1984, p. 66.
- 56) 孫東宿：赤水玄珠全集,臺灣,海著易堂藏版,1919, pp. 9-10.
- 57) 巢元方：巢氏諸病源候論,前揭書, p. 303.
- 58) 陳自明：婦人大全良方,前揭書, p. 376.
- 59) 孫思邈：備急千金要方 卷二,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 p. 25.
- 60) 陳自明：婦人大全良方,前揭書, p. 377.
“<經心錄> 紫石英圓 主風冷在子宮...”“療姪
娠數墮胎...宜服卷柏圓”
- 61) 齊仲甫：女科百問,前揭書, p. 62.
“第五十八問 妊娠三月曾經墮胎至其月日復
墮...”
- 62) 薛立齋註：校註婦人良方 卷十三,前揭書,
pp. 1-2.
“愚按,丹溪先生曰...血氣虛乏 不能榮養 其
胎則墜...教以濃煎白朮湯下黃芩末二錢”
- 63) 朱丹溪：丹溪心法附餘 卷之二十一,前揭書,
pp. 1-2.
“產前安胎白朮黃芩爲妙藥也...清熱今血循經
而不妄行故能養胎”
- 64) 萬全：萬氏婦人科,湖北,湖北人民出版社,
1983, pp. 20-22.
- 65) 李梴：編註醫學入門,서울,南山堂,1985,
p.1637, p.1641.
- 66) 朱丹溪：丹溪心法附餘,臺北,五洲出版社,
1984, p. 2.
- 67) 孫東宿：赤水玄珠全集(下冊五 卷21),前揭
書, pp. 9-10.
- 68) 王肯堂：六科證治準繩(女科),서울,大星文
化社,1992, p. 372-374.
- 69) 武之望：濟陰綱目,서울,大城出版社,1972,
p. 335-337.
- 70) 許浚：東醫寶鑑,前揭書, p. 170-173.
- 71) 張景岳：景岳全書 婦人規,廣東,廣東科學
技術出版社,1984, p. 185-190.
- 72) 吳謙：醫宗金鑑,前揭書, p. 60.
- 73) 康命吉：濟衆新編,前揭書, p. 247.
- 74) 傅青主：傅青主男女科,서울,大星文化社,
1989, p. 118-122.
- 75) 葉天士：葉天士女科診治秘方,臺北,大方出
版社,1982, pp. 39-40.
- 76) 林佩琴：類證治裁,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8, p. 431.
- 77) 蕭損：女科經論,前揭書, pp. 148-152.
- 78) 陳佳圓：婦科秘書八種,北京,中醫古籍出版
社,1988, pp. 88-89.
- 79) 石壽棠撰：醫原,江蘇,江蘇科學技術出版

- 社, 1983, p. 157.
- 80) 陳士鐸 : 辨證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p. 723-724.
- 81) 魏之琇 : 續名醫類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 600-601.
- 82) 福州市人民醫院整理 : 孫浩銘婦科臨床經驗, 福建, 福建人民出版社, 1978, pp. 71-73.
- 83) 宋炳基 : 漢方婦人科學, 前揭書, p. 398.
- 84) 國 轅 : 實用中西醫結合婦產科證治, 前揭書, pp.113-114.
- 85) 屠振華, 李金邦 : 臨床實習醫師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 564.
- 86) 宋炳基 : 漢方婦人科學, 前揭書, p. 397.
- 87) 戴新民 輯 : 中醫婦產科學, 前揭書, p. 206.
- 88) 孫久齡 : 婦科證治, 前揭書, p. 110.
- 89) 王心好 : 加味阿膠鷄子湯治療滑胎 46例, 實用中西醫結合雜誌, 7(2) ; 87-88, 1994.
- 90) 金石聲 : 所以載丸治療習慣性流產, 四川中醫, 7期 ; 45, 1990.
- 91) 金 真 : 二天固胎煎治療滑胎35例臨床觀察, 浙江中醫學院學報, 16(5) ; 22-23, 1992.
- 92) 葉寶貴 陳偉民 : 自擬保胎湯治療先兆流產 60例, 浙江中醫雜誌, 2月号 ; 60, 1986.
- 93) 張寬智 : 安奠二天湯加味治療習慣性流產三十七例, 浙江中醫雜誌, (2) ; 60-61, 1986.
- 94) 劉玉海 唐元祥 : 附子湯加減治療先兆和習慣性流產53例臨床觀察, 四川中醫, (12) ; 45, 1993.
- 95) 姚群元 : 自擬固腎安胎飲治療習慣性流產40例, 湖北中醫雜誌, 14(95) ; 9, 1992.
- 96) 周長法 : 自擬安胎飲治療胎漏胎動不安滑胎 93例, 湖北中醫雜誌, 13(36) ; 20, 1991.
- 97) 劉茂林 : 保胎飲治療滑胎148例, 陝西中醫, 12(5) ; 206, 1991.
- 98) 汪一平 : 黃芪壽胎丸治療習慣性流產30例, 湖北中醫雜誌, 14(95) ; 11, 1992.
- 99) 于 榮 : 溫鍼治療習慣性流產 41例, 陝西中醫, 14(6) ; 273, 1993.
- 100) 文良中 : 針刺可以保胎, 浙江中醫雜誌, 24(12) ; 558, 1989.
- 101) 文良中 : 針刺可以保胎, 前揭書 ; 558.
- 102) 李 文 主編, 婦產科護理, 前揭書, p. 307.
- 103) 宋炳基 : 漢方婦人科學, 前揭書, p. 400.
- 154) 金 真 : 二天固胎煎治療滑胎35例臨床觀察, 前揭書 ; 23.
- 105) 趙榮暉 : 保胎法近況, 浙江中醫雜誌, (8) ; 353, 1987.
- 106) 嚴可斌, 王梅花 : “滑胎”治未病法, 上海中醫藥雜誌, (7) ; 21, 1994.
- 107) 嚴可斌, 王梅花 : 滑胎治未病法, 前揭書 ; 21.
- 108) 趙榮暉 ; 保胎法近況, 前揭書 ; 353.
- 109) 趙光燕 : 趙松泉治療 ‘AB.O’ 溶血性滑胎的經驗, 北京中醫雜誌, (1) ; 8-9, 1994.
- 110) 韓金蘭 등: ABO血型不合引起早期流產的中藥治療, 中國中西醫結合雜誌, 13(1) ; 13-14. 1993.
- 111) 대한산부인과학회 : 부인과학, 前揭書, p. 437.
- 112) 송찬호 : 습관성 유산 및 조산, 前揭書 ; 889
- 113) Ifly. L., Kaminetzky H. A. : Principles and practice of obstetrics, 前揭書, p. 565.

- 114) Pritchard, J. A. , MacDonald, P. C. : Williams Obstetrics, 前掲書, p. 597.
- 115) 대한산부인과학회 : 부인과학, 前掲書, p. 438.
- 116) 孫久齡 : 婦科證治, 河北, 河北人民出版社, 1983, p. 106.
- 117) 高金亮 主編 : 中醫學問答提庫 婦科分冊, 前掲書, p. 63.
- 118) 蕭 損 : 女科經論, 前掲書, p. 148.
- 119) 宋炳基: 漢方婦人科學, 前掲書, pp. 57-58.
- 120) 陳自明 : 婦人大全良方, 前掲書, p. 377.
- 121) 許 浚 : 東醫寶鑑, 前掲書, p. 170-173.
- 122) 張景岳 : 景岳全書 婦人規, 前掲書, p. 185-190.
- 123) 林佩琴 : 類證治裁, 前掲書, p. 431.
- 124) 孫思邈 : 備急千金要方 卷二, 前掲書, p.25.
- 125) 陳自明 : 婦人大全良方, 前掲書, p. 377.
- 126) 薛立齋 : 校註婦人良方, 前掲書, p. 1-2.
- 127) 朱丹溪 : 丹溪心法附餘 卷二十一, 前掲書, p. 1-2.
- 128) 蕭 損 : 女科經論, 前掲書, pp. 148-152.
- 129) 李 梴 : 編註醫學入門, 前掲書, p. 1641.
- 130) 葉天士 : 葉天士女科診治秘方, 前掲書, p. 40.
- 131) 許 浚 : 東醫寶鑑, 前掲書, p. 173.
- 132) 薛立齋 : 校註婦人良方, 前掲書, p. 1-2.
- 133) 萬 全 : 萬氏婦人科, 前掲書, p. 22
- 134) 薛立齋 : 校註婦人良方, 前掲書, p. 1-2.
- 135) 萬全 : 萬氏婦人科, 前掲書, pp. 21-22.
- 136) 傅青主 : 傅青主男女科, 前掲書, pp. 118-122.
- 137) 傅青主 : 傅青主男女科, 前掲書, p. 118.
- 138) 葉天士 : 葉天士女科, 前掲書, p. 39
- 139) 陳士鐸 : 辨證錄, 前掲書, p. 724.
- 140) 傅青主 : 傅青主男女科, 前掲書, p. 119.
- 141) 福州市人民醫院整理 : 孫浩銘婦科臨床經驗, 前掲書, p. 71-73.
- 142) 王心好 : 加味阿膠鷄子湯治療滑胎46例, 前掲書 ; 87-88.
- 143) 金石聲 : 所以載丸治療習慣性流產, 前掲書 ; 45.
- 144) 金 眞 : 二天固胎煎治療滑胎35例臨床觀察, 前掲書 ; 22-23.
- 145) 葉寶貴 陳偉民 : 自擬保胎湯治療先兆流產60例, 前掲書 ; 60.
- 146) 張寬智 : 安奠二天湯加味治療習慣性流產三十七例, 前掲書 ; 60-61.
- 147) 劉玉海 唐元祥 : 附子湯加減治療先兆和習慣性流產53例臨床觀察, 前掲書, p. 45.
- 148) 姚群元 : 自擬固腎安胎飲治療習慣性流產40例, 前掲書 ; 9.
- 149) 周長法 : 自擬安胎飲治療胎漏胎動不安滑胎93例, 前掲書 ; 20.
- 150) 汪一平 : 黃芪壽胎丸治療習慣性流產30例, 前掲書 ; 11.
- 151) 于 榮 : 溫鍼治療習慣性流產41例, 前掲書 ; 273.
- 152) 文良中 : 鍼刺可以保胎, 前掲書 ; 558.
- 153) 趙光燕 : 趙松泉治療 ' AB. O' 溶血性滑胎的經驗, 前掲書 ; 8-9.
- 154) 韓金蘭 等 : ABO血型不合引起早期流產的中藥治療, 前掲書 ; 13-14.